

#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 심정지 환자의 귀중한 생명 구해

대구광역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지난 7월 말 달성군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자택에서 한 60대 남성이 옥수수와 주류를 함께 섭취하다 쓰러져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심정지 상황임을 인지해,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는 동시에 당시 근무 중이던 ‘단디서포터즈’ 신모 씨(아파트 경비원)에게 문자와 음성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이에, 경비원은 아파트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다음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심정지 발생 이후 소생하기까지 6분 내



이루어진 상황이다.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시행한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사업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과 단디서포터즈(아파트 관리종사자 및 경비원 등) 간 상황 전파시스템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해 온 사업으로 현재 총 4,017명의 서포터즈가 시민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현욱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지난 2020년 첫 심정지 환자 소생 사례 이후 두 번째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다”며, “대구시가 시민, 소방,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응급의료지원단이 협약해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170단지를 방문해 2,009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중 1,852(92.2%)명이 단디서포터즈로 가입해 101건의 심정지 상황에 응답해 줬다.

※교육신청 : (주관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053-200-6257)

〈자료제공:대구시청〉



**브라더한정식도시락, 도시락·백미 정기 기탁**  
브라더한정식도시락(회장 권미화, 대표 김상철, 김명재)은 지난 11일(금)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과 백미 20kg 3포(15만원)를 달서구에 매월 정기 기탁하기로 했다.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서삼수 회장 이웃사랑 후원품 전달**  
서삼수 회장(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은 지난 15일(화)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라면 50박스(130만 원 상당)를 달서구에 기탁했다.



**대구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시설 기증**  
대구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성서지역대는 지난 11일(금) 달서구 소재 식당(산막촌국시말)에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1개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을 기증 설치했다.



**이마트 성서점, 생필품 100세트 전달**  
지난 7일(월) 이마트 성서점(점장 원종근)과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봉)가 참석한 가운데 생필품 100세트(5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달성군에서 가졌다.



**주식회사 석진조경, 사랑의 성금 전달**  
주식회사 석진조경(대표이사 여서현)은 지난 8일(화) 대가야읍사무소(읍장 백승욱)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의료선교봉사’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회장 조광범)가 지난 9월 30일(월)~10월 7일(월)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산병원에서의 제32차 해외의료선교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해외의료선교봉사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원장 조치흥) 개원 125주년을 기념해 이뤄졌으며, 봉사단은 선교적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마음과 함께, 조광범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을 단장으로 진료봉사팀과 구제봉사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18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자료제공: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개진면 보금자리봉사회, 무료급식 봉사

보금자리봉사회(회장 김남순)는 지난 8일(화) 개진면 옥산 1리 마을회관에서 관내 거주하는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